

삼성이 로마로 간 까닭은... 'AI·IoT 혁신' 전파하러

삼성 포럼

전세계 3000여명 거래선 참가
빅스비-TV·냉장고 등 연동 시연
서남아 특화 TV 라인업도 선보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부장 사장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삼성 포럼'에서 "올해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5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전 세계 주요 거래선을 대상으로 한 '삼성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삼성 포럼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행사다. 전 세계 주요 거래선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 사업전략을 공유한다. 올해는 이탈리아 등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서남아·CIS·중동·중남미·중국 등 순차적으로 전 세계 3000여명의 거래선이 참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시부스에서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 등 삼성의 혁신기술



삼성전자 CE부부장 김현석 사장이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삼성 포럼'에서 올해 주요 제품과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 모바일·스마트 TV·패밀리허브 냉장고 등을 비롯해 제3차 기기 및 앱과 연동되고, 제어하는 시연을 펼쳤다.

또한 주요 사업부문별 혁신 제품과 지역 특화 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냉장고의 경우 진화된 음성인식 기술과 연결성으로 CES 2018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2018년형 패밀리허브'를 기존 4도어 제품 외 유럽 시장에 특화된 BMF(Bot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포럼' 전시부스에서 '2018년형 패밀리허브' 4도어 타입 냉장고(왼쪽)와 '퀵드라이브' 세탁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tom Mount Freezer, 상냉장·하냉동 방식) 타입과 양문형 타입으로 선보였다.

동남아 포럼에서는 '트윈 쿨링 플러스 냉장고'를 지역 특화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독립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냉장실과 냉동실 간 냄새가 섞이지 않는다. 각각 끄거나 켤 수 있고 냉동실과 냉장실을 서로 전환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효율적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2018년 신모델에는 동남아 현지

소비자 조사를 통해 신규 발굴한 '렉스브라운' 컬러를 적용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탁기는 세탁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여 호평을 받고 있는 '퀵드라이브' 라인업을 세탁·건조 복합 모델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까지 확대했다.

에어컨은 B2B 강화 전략에 따라 벽걸이형 제품에서부터 1Way·4Way 등 상업

용 카세트형(천장형 실내기)까지 '무풍냉방' 기술을 확대 적용해 '무풍에어컨' 풀 라인업을 전시했다.

TV 부문은 올해 75형 이상 초대형 TV 수요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시장 대형화 흐름에 맞춘 기술과 제품 중심으로 전시장을 운영해 거래선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AI 고화질 변환 기술을 탑재해 CES에서 호평 받은 8K QLED TV 외 75형 이상 대형 QLED TV에 초점을 맞춰 ▲컬러볼륨 ▲HDR ▲명암비 측면을 강조한다.

서남아 포럼에서는 지역 특화 TV 모델인 '콘서트' 시리즈 라인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은 현지 시장 특성상 TV 시청시 주변 소음이 많고 종교 방송 비중이 높은 점에 착안해 보다 또렷하게 음향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강화된 사운드가 특징이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8·갤럭시S8 등 최신 스마트폰과 기어 스포츠·기어S3·2018년형 아이콘X 등 다양한 웨어러블 라인업을 전시해 거래선들에게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올림픽 기간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 개관

삼성전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를 9일 개관한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과 강릉에 위치한 올림픽 파크와 올림픽 선수촌, 평창 메인 프레스센터, 인천공항 등에 9개의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를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집약한 체험 공간에서 삼성의 브랜드 정신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Do What You Can't)'를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팬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3069㎡ 규모로 꾸며진 강릉 올림픽 파크 삼성 올림픽 쇼케이스에서는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과 가상현실 플랫폼 등

을 체험할 수 있다.

갤럭시 노트8과 기어 VR로 다양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 갤럭시 노트8로 나만의 셀피 사진을 꾸미고 UCC를 만들어 보는 '제품 체험존', 삼성전자가 휴대전화로 처음 출시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제품 역사와 올림픽 후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연박스 삼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키즈 라운지, 고객 서비스 존, 스페셜 이벤트 존 등 방문하는 선수단과 팬들이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VR 체험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VR 우주 미션: 인류의 달 탐사'는 달의 중력을 실현한 4D 가상현실로 탐사 미션을 수행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스노우보드, 스키투어 등 동계올림픽 종목에 4D 플랫폼의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도 있다.

/정은미 기자



LGU+, 노키아·퀄컴과 5G 통신 시연 성공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장비 제조사인 노키아, 단말칩 제조사인 퀄컴과 핀란드 노키아 본사에서 5세대(5G) 국제 표준 기반의 데이터 통신 시연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5G 국제표준화 단계인 '3GPP'가 지난해 12월에 5G 표준으로 승인한 'NSA(Non-Standalone)' 기반으로 진행됐다. NSA는 5G와 LTE를 융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3GPP는 NSA 표준에 이어 올해 상반기 5G 1차 규격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통신·장비사들은 3GPP의 표준 규격에 맞

춰 5G 기지국과 단말을 개발하게 된다. 그간 대형 글로벌 사업자들은 5G 표준 대신 자체 규격으로 실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지국과 단말 간 유선으로 연결하여 시험하는데 그쳐 실제 무선통신 환경과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연은 5G 국제표준 규격으로 진행했고, 기지국과 시험 단말을 무선으로 연결해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장비·단말 제조사들이 LG유플러스와 함께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배출가스 없는 'SUV'... 가족과 타기 딱 좋네!



현대자동차 '넥쏘'

평창 메달하우스까지 시승 진행
시승 후 7km 자율주행도 마무리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물론 화학업계, IT업계도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인 '넥쏘'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차가 넥쏘를 개발하면서 최첨단 수소차의 기술력과 자율주행 기술을 총망라해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수소전기차 넥쏘의 기능을 시승을 통해 만나봤다. 넥쏘는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시승은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출발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 메달하우스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우선 외관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비슷한 크기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 싼타페와 비교하면 전장은 30mm, 전폭은 20mm 작고, 전고는 최대 60mm 낮다. 트렁크 용량도 839L로 가족용 SUV로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 미래와 현재의 시각적 경계를 보여주는 호라이즌 포지셔닝 랩프, 클린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히든 리어 와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충전모습.

이퍼 등으로 기존 차량과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구현했다.

실내 공간은 친환경차의 특성을 완벽하게 담았다. 마감재를 바이오 플라스틱과 패브릭, 식물성 도료 등 U인 증 바이오소재를 사용했다. 대시보드 중간에 위치한 통합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수소전기차 특화 UX(사용자경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동을 걸어보면 진동과 소음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정숙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가스를 느낄 수 없다. 대신 하얀 증기와 차량 시동을 끄면 깨끗한 물을 배출한다.

차량의 주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높여봤다. 수소전기차도 전기차다. 수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돌린다. 전동기는 최고 113kW(약 154마력), 최대 약 40.3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효율은 복합 기준 1kg당 96.2km(도심 99.5km/

kg, 고속도로 92.5km/kg)를 인증 받았다. 덕분에 정지 상태에 서 가속페달을 밟으면 전기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다.

고속 구간에서 가속력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도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

시승을 마친 후 평창 메달하우스를 출발해 시내도로 약 7km구간에서 넥쏘 자율주행차를 체험했다. 이날 자율주행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반자율주행·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자율주행 단계)을 적용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가 스스로 주행을 이어갔다.

넥쏘 자율주행차에는 전후방 및 측면에 총 6개의 라이다(LiDAR) 센서와 3개의 레이더(Radar) 센서, 3개의 카메라를 적용해 도로 위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상황을 보조석에 마련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차선 도로를 주행하는 넥쏘 자율주행차는 교통 신호를 받아 스스로 좌회전을 하고 공사 구간을 피해가는 등 안전한 주행을 이어갔다. 다만 교통 신호 없이 자유롭게 주행하는 회전 교차로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는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이어갔다.

한편 현대차는 9일부터 강릉과 평창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넥쏘 시승체험 및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과 IT신기술이 적용된 넥쏘 시승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주행모습.